

WEBVTT

00:00:10.074 --> 00:00:11.444

여러분, 반갑습니다.

00:00:11.544 --> 00:00:13.218

호랑국어 송종민 선생님입니다.

00:00:13.318 --> 00:00:17.169

이번에 여러분에게 준비한 강좌는
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.

00:00:17.269 --> 00:00:19.271

풀면 백점 맞는 현대 문법.

00:00:19.371 --> 00:00:21.697

이 강의 말고 또다른
강의가 있습니다.

00:00:21.797 --> 00:00:25.827

그때도 풀면 백점 맞는 고전문법,
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.

00:00:25.927 --> 00:00:29.075

우선 이번에는 20강을
이용해서 현대 문법을

00:00:29.175 --> 00:00:31.035

깊이 파보겠다는 겁니다.

00:00:31.135 --> 00:00:34.375

줄여서 풀백 현대 문법,
이렇게 잡아놓은 건데.

00:00:34.475 --> 00:00:36.821

강의의 특장점에 대한
이야기를 해볼게요.

00:00:36.921 --> 00:00:39.915

첫 번째는 강의가 겁니다.

00:00:40.015 --> 00:00:42.791

20강이에요, 전체가
20강이기 때문에

00:00:42.891 --> 00:00:46.671

일단 현대 문법만 다루는 것도,
20강으로 만드는 것도 길고

00:00:46.771 --> 00:00:49.310

그런데 강수가 많다는
문제만이 아니라

00:00:49.410 --> 00:00:51.645

선생님이 이 OT를
찍은 게 OT를 찍고

00:00:51.745 --> 00:00:54.124

그 다음 이어서 1강, 2강,
3강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

00:00:54.224 --> 00:00:56.157
5, 6강까지 찍어봤어요.

00:00:56.257 --> 00:00:59.519
그리고 나서 OT를
하고 있는 중이거든요.

00:00:59.619 --> 00:01:02.021
그 이야기는 뭐냐면
이미 저는 찍어봤으니까

00:01:02.121 --> 00:01:04.045
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
지 알고 있거든요.

00:01:04.145 --> 00:01:06.779
1시간 40분, 50분 이런
것도 있습니다, 강의가.

00:01:06.879 --> 00:01:09.509
그런데 여러분이 되게
부담스럽게 느낄 수는 있는데

00:01:09.609 --> 00:01:13.625
그러면 여러분이 지혜롭게 잘라서
강의를 이어들으면 되는 거고.

00:01:13.725 --> 00:01:17.106
집중력이 있는 분들은 한 번에
쭉 가는 게 좋기는 해요.

00:01:17.206 --> 00:01:18.718
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.

00:01:18.818 --> 00:01:21.879
줄여서 4, 50분으로
잘라서 하면 되잖아?

00:01:21.979 --> 00:01:25.178
이렇게 생각할 법도 한데
이게 부분이 있으니까

00:01:25.278 --> 00:01:27.241
갈래가 있고 파트가
있고 하기 때문에

00:01:27.341 --> 00:01:30.115
딱딱 떨어지게끔 강의를
진행해야 된다는 입장에서

00:01:30.215 --> 00:01:33.427
선생님이 그렇게 길게 진행을
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.

00:01:33.527 --> 00:01:38.141
그리고 저는 이 강의를 다른
어떤 시중에 있던 인터넷 강의,

00:01:38.241 --> 00:01:40.999
온라인 강의보다 문법에 대해서는

00:01:41.099 --> 00:01:43.431

굉장히 집중적으로 다루는
강의라고 자랑하고 싶거든요.

00:01:43.531 --> 00:01:46.993

왜냐하면 문제 풀이가 없어요.

00:01:47.093 --> 00:01:50.361

저는 이 강의에서
실전 문제 풀이 말고

00:01:50.461 --> 00:01:53.063

간단한 테스트 정도는 제공을 하는데

00:01:53.163 --> 00:01:55.920

실전 문제 풀이를 강의로
제공하지는 않습니다.

00:01:56.020 --> 00:01:58.882

문제는 제공해도 강의를
제공하지는 않아요.

00:01:58.982 --> 00:02:00.612

문제 풀이가 급한 게 아니에요.

00:02:00.712 --> 00:02:03.321

여러분은 문법 지식이
없는 상태이기 때문에

00:02:03.421 --> 00:02:06.227

문법 지식을 확고하게
확실하게 익혀야 되는 건데

00:02:06.327 --> 00:02:08.611

선생님은 좀 안타까운
게 그런 부분이에요.

00:02:08.711 --> 00:02:10.473

어떤 강의를 기존에 들었어요.

00:02:10.573 --> 00:02:13.315

문법 강의를 들었는데 짧게 끝내는,

00:02:13.415 --> 00:02:16.113

10시간에 마무리하는
이런 강의예요.

00:02:16.213 --> 00:02:17.389

보니까 좋아요.

00:02:17.489 --> 00:02:19.757

10시간만 투자하면 문법
끝낼 수 있겠구나, 라는

00:02:19.857 --> 00:02:22.440

기대감을 갖고 선생님을
믿고 강의를 들었어요.

00:02:22.540 --> 00:02:26.460

그런데 문제를 적용해서 풀려고
했더니 모르는 게 나오는 거예요.

00:02:26.560 --> 00:02:27.882

모르겠어 그냥.

00:02:27.982 --> 00:02:30.237

응용의 개념이 아니에요,
수학하고는 달라요.

00:02:30.337 --> 00:02:33.110

수학 같은 경우에는
기본적인 것들을 가르쳐주면

00:02:33.210 --> 00:02:36.181

그다음에 공식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

00:02:36.281 --> 00:02:39.563

숫자가 달라지는 것들을
응용하고 대입하면 되는 거지만

00:02:39.663 --> 00:02:44.542

문법은 아예 모르는 정보가 나오면
응용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.

00:02:44.642 --> 00:02:46.026

그냥 모르면 처음 보는 겁니다.

00:02:46.126 --> 00:02:47.640

그 보기를 통해서.

00:02:47.740 --> 00:02:50.125

그러니까 내가 배웠던
내용이 아닌데.

00:02:50.225 --> 00:02:53.031

낮설고 또 틀리고
이런 일이 생깁니다.

00:02:53.131 --> 00:02:54.401

그러면 이제 원망을 하겠죠.

00:02:54.501 --> 00:02:56.961

선생님이 10시간이면
끝낸다고 했는데

00:02:57.061 --> 00:02:59.761

10시간 강의 들었는데 안
나오는 것들이 있네.

00:02:59.861 --> 00:03:02.783

이러면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.

00:03:02.883 --> 00:03:06.665

저는 지금 이 강의를 통해서
여러분이 보기에서 볼 내용들,

00:03:06.765 --> 00:03:08.710

안 다루는 거 하나도 없이 갑니다.

00:03:08.810 --> 00:03:10.127

다 다룬다는 이야기에요.

00:03:10.227 --> 00:03:12.804

적어도 이 강의를 듣고 나서
선생님이 안 가르쳐줬기 때문에

00:03:12.904 --> 00:03:14.896

나는 틀렸어, 라는
이야기를 못할 거예요.

00:03:14.996 --> 00:03:16.238

모두 다 다릅니다.

00:03:16.338 --> 00:03:17.887

그러다 보니까 길어지는 거예요.

00:03:17.987 --> 00:03:21.856

그 이야기는 뭐냐면 모두
다 다룬다는 이야기는

00:03:21.956 --> 00:03:24.558

제가 제공하는 이 20강을 통해서

00:03:24.658 --> 00:03:27.130

여러분이 완벽하게
현대 문법의 지식을

00:03:27.230 --> 00:03:29.392

자기 것으로 만들 수
있다는 이야기입니다.

00:03:29.492 --> 00:03:33.296

물론 복습을 하고 다시 한 번
모르는 거 듣기도 해야겠지만

00:03:33.396 --> 00:03:35.390

노력을 해야 되겠지만

00:03:35.490 --> 00:03:39.325

적어도 생소한 정보가 문제를
통해서 제공되는 일은

00:03:39.425 --> 00:03:41.642

그런 일은 경험하지
않을 거라는 이야기죠.

00:03:41.742 --> 00:03:43.701

완벽하게 다 강의를 들을 테니까.

00:03:43.801 --> 00:03:44.913

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?

00:03:45.013 --> 00:03:47.706

그래서 웬만한 각오 아니면,

00:03:47.806 --> 00:03:50.455

나는 이 강의 못 들겠어, 뭐 이렇게 길어?
안 돼, 안 돼.

00:03:50.555 --> 00:03:51.958

그러면 다른 거 들으세요.

00:03:52.058 --> 00:03:55.641

꼭 이 강의 들으세요, 라고
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.

00:03:55.741 --> 00:03:59.494

마음이 있는 친구들,
나 진짜 짜증나.

00:03:59.594 --> 00:04:02.484

애매모호한 거 싫어,
그냥 완벽하게 풀래.

00:04:02.584 --> 00:04:06.246

왜요? 범위가 정해져
있으니까 좀 길기는 해도

00:04:06.346 --> 00:04:08.383

그 정해져 있는 범위를 다 공부를
하면 내 거 되는 거예요.

00:04:08.483 --> 00:04:09.897

쉽게 풀 수 있거든요.

00:04:09.997 --> 00:04:11.958

그러니까 도전할
친구들만 이 강의 듣고

00:04:12.058 --> 00:04:14.005

그다음에 끝까지 해내도록 하세요.

00:04:14.105 --> 00:04:16.359

강의 길다는 거 저
이미 말씀드렸습니다.

00:04:16.459 --> 00:04:19.586

그러니까 여러분이 전체적으로
강의 시간표 확인해보시고

00:04:19.686 --> 00:04:22.370

그다음에 런타임 본 다음에

00:04:22.470 --> 00:04:26.387

오늘은 1시간밖에 시간이
없는데 하면 적당하게 끊어서

00:04:26.487 --> 00:04:28.269

그다음에 이어서 듣기도 하고.

00:04:28.369 --> 00:04:31.352

아니면 한 번 몰아서
주말에 들어주기도 하고

00:04:31.452 --> 00:04:33.740

이런 계획을 나름 세우셔야 돼요.

00:04:33.840 --> 00:04:36.796

다음 두 번째, 복습은
꼭 하셔야 돼요.

00:04:36.896 --> 00:04:38.979

일단 한 강을 듣고
거기에 대한 지식을

00:04:39.079 --> 00:04:41.453

내 거로 만든 다음에
강의로 넘어가야지

00:04:41.553 --> 00:04:43.541

만약에 복습이 제대로
안 되어있는 상태에서

00:04:43.641 --> 00:04:45.272

다음 강의로 넘어가게 되면,

00:04:45.372 --> 00:04:51.978

모르는 내용을 설명하고
나서 그다음 강의는

00:04:52.078 --> 00:04:55.323

그 설명된 내용을 토대로 또
진행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.

00:04:55.423 --> 00:04:57.924

그러면 지난 시간에
설명했다고 생각을 하니까

00:04:58.024 --> 00:05:00.242

저는 되게 빨리 이야기를
할 거 아닙니까?

00:05:00.342 --> 00:05:01.642

아시죠? 하고 넘어가는데.

00:05:01.742 --> 00:05:04.215

그런데 내가 이 강의에 대해서
내 거가 안 된 상태에서는

00:05:04.315 --> 00:05:05.907

이 강의를 힘들어질 거 아닙니까?

00:05:06.007 --> 00:05:07.897

그래서 한 강, 한 강을 들을 때

00:05:07.997 --> 00:05:11.240

한 강, 한 강 완벽하게 자기
거로 만들어주고 복습하고.

00:05:11.340 --> 00:05:12.729

꼭 한 번만 들을 필요 없어요.

00:05:12.829 --> 00:05:14.232

필요한 거는
또 한 번 듣기도 하고

00:05:14.332 --> 00:05:18.997

2배속으로 듣기도 하고 해서
문법하고 싸우셔야 됩니다.

00:05:19.097 --> 00:05:23.267

그렇게 해서 복습을 하고
다음 강으로 넘어가달라.

00:05:23.367 --> 00:05:25.302

이런 부탁을 꼭 드리고 싶고요.

00:05:25.402 --> 00:05:28.443
다음 세 번째로는 외우는 거예요.

00:05:28.543 --> 00:05:31.130
이해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
그냥 외우는 겁니다.

00:05:31.230 --> 00:05:35.181
문학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작품에
대한 감상 훈련을 하는 것이고

00:05:35.281 --> 00:05:38.761
그래서 그런 감을 좀 살리는
작업을 해야 되겠죠.

00:05:38.861 --> 00:05:42.464
비문학 같은 경우에도
비문학적인 독해의 능력들을

00:05:42.564 --> 00:05:44.877
함양하는 그런 강의가
진행되는 것이고.

00:05:44.977 --> 00:05:47.662
또 개인적으로 계속 훈련하는
작업을 하셔야 될 거예요.

00:05:47.762 --> 00:05:49.329
그런데 외우는 개념은 아니잖아요.

00:05:49.429 --> 00:05:52.192
그러나 국어에서 유일하게
외워야 되는 것이

00:05:52.292 --> 00:05:53.644
바로 이 문법 부분이잖아요.

00:05:53.744 --> 00:05:56.834
그런데 외우지 않고 강의를
통해서 실력을 올리겠다?

00:05:56.934 --> 00:05:58.239
좋은 강의예요.

00:05:58.339 --> 00:06:01.805
그런데 이 좋은 강의를 정말 좋은
성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

00:06:01.905 --> 00:06:03.395
연결 짓기 위해서는 중간 과정,

00:06:03.495 --> 00:06:05.886
여러분이 외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.

00:06:05.986 --> 00:06:10.186
그래서 선생님이 외우라는
것들은 꼭 외워주세요.

00:06:10.286 --> 00:06:12.216

안 외워도 풀 수 있잖아?

00:06:12.316 --> 00:06:13.383

네, 풀 수 있어요.

00:06:13.483 --> 00:06:14.843

외우지 않아도 풀 수 있습니다.

00:06:14.943 --> 00:06:16.465

그런데 이런 경우예요.

00:06:16.565 --> 00:06:20.649

여러분이 문법은 내신에서도
보고 수능에서도 볼 겁니다.

00:06:20.749 --> 00:06:24.088

내신에서는 주로 2학년 때
지지고 볶고 하는 상황인데

00:06:24.188 --> 00:06:30.148

그때 조금 한 발짝 더 열심히 공부한
친구들이 점수 다 끌어가요.

00:06:30.248 --> 00:06:34.412

그런데 잘 모르겠어, 힘들어
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

00:06:34.512 --> 00:06:35.768

점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.

00:06:35.868 --> 00:06:38.193

그래서 선생님이 아는
많은 학생들을 보면

00:06:38.293 --> 00:06:40.784

어느 정도 문학, 비문학
이런 거 나올 때

00:06:40.884 --> 00:06:42.394

1학년 때 국어 내신은
되게 잘해요.

00:06:42.494 --> 00:06:45.339

이 친구는 기본적으로
국어 센스가 있어.

00:06:45.439 --> 00:06:48.916

그래서 그렇게 많이 공부하지
않아도 그냥 해결이 되던대요?

00:06:49.016 --> 00:06:52.305

이런 친구들이 문법 파트 들어가면서

00:06:52.405 --> 00:06:56.219

내신 시험에 나오면 예전처럼
그냥 내 실력 믿고

00:06:56.319 --> 00:06:58.815

대충 감 믿고 풀었다가
다 틀리는 거예요.

00:06:58.915 --> 00:07:02.087

그래서 갑자기 1, 2등급 찍던
애들이 4, 5등급으로 밀려서

00:07:02.187 --> 00:07:04.048

아뿔사, 이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.

00:07:04.148 --> 00:07:08.388

그런데 국어 내신에서는 문법할
때가 확실히 등급이 달라집니다.

00:07:08.488 --> 00:07:10.538

그래서 좀 성실하게
공부를 해주셔야 되고.

00:07:10.638 --> 00:07:15.419

특히 내신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강의를
하면서 이런 정보를 드려요.

00:07:15.519 --> 00:07:17.330

이 부분에 대한 문법적 해석이

00:07:17.430 --> 00:07:20.052

A 케이스가 있고 B
케이스가 있다.

00:07:20.152 --> 00:07:22.665

그래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
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으니까

00:07:22.765 --> 00:07:25.113

이거 수능에서는 안 나온다.

00:07:25.213 --> 00:07:28.392

왜냐하면 이럴 수도 있고
저럴 수도 있는 것 중에서

00:07:28.492 --> 00:07:30.258

뭐냐고 물어볼 수는 없는 거예요.

00:07:30.358 --> 00:07:31.882

문법적 해석이 다른 거니까.

00:07:31.982 --> 00:07:35.162

그런데 거기에 대해서
내신에서는 출제할 수 있다.

00:07:35.262 --> 00:07:38.988

그런데 내신에서 내면 꼭
가르치는 선생님한테

00:07:39.088 --> 00:07:42.815

이럴 경우는 이거로 해석합니까?
이거로 해석합니까?

00:07:42.915 --> 00:07:45.112

이렇게 물어봐서 기준을
잡아야 된다.

00:07:45.212 --> 00:07:47.158

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.

00:07:47.258 --> 00:07:50.655
제가 수업 시간에 이거는 꼭 학교에서
내신이라면 물어보셔야 돼요.

00:07:50.755 --> 00:07:53.694
이렇게 하는 것들은 물어보시고
기준을 잡아야 합니다.

00:07:53.794 --> 00:07:56.407
그래서 그 기준에 맞게끔
외우도록 하시고.

00:07:56.507 --> 00:07:59.449
수능은 어느 정도 외워진
그 기반 안에서

00:07:59.549 --> 00:08:02.307
보기를 굳이 읽을
필요가 없는 거죠.

00:08:02.407 --> 00:08:06.287
그런데 안 외워도 보기 보면 풀
수 있다고들 이야기하거든요.

00:08:06.387 --> 00:08:07.780
그런데 문법은 너무 힘든 거예요.

00:08:07.880 --> 00:08:09.072
그러니까 변별력이 생기죠.

00:08:09.172 --> 00:08:12.157
못하면 이 문법에서 다섯 문제
다 틀리는 경우도 있어요.

00:08:12.257 --> 00:08:16.130
그래서 보기를 보고 이해하는
데는 시간이 걸리고

00:08:16.230 --> 00:08:18.509
그다음에 정확도가
떨어진다는 겁니다.

00:08:18.609 --> 00:08:22.313
그런데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
확실하게 내 거로 만들어주면

00:08:22.413 --> 00:08:25.110
보기에 크게 의존하지 않아도
문제를 풀 수가 있고

00:08:25.210 --> 00:08:27.744
그리고 정확하게 자신감있게
풀 수가 있어요.

00:08:27.844 --> 00:08:31.997
심지어 선생님은 수능을 준비하는
친구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.

00:08:32.097 --> 00:08:36.793
처음에 시험 볼 때

압박감이 크거든요.

00:08:36.893 --> 00:08:38.645
국어 영역이 첫 시험이죠.

00:08:38.745 --> 00:08:42.348
그래서 딱 첫 장을 넘기는데
텍스트가 나오잖아요.

00:08:42.448 --> 00:08:44.532
화법 작문하면서 쪽 나옵니다.

00:08:44.632 --> 00:08:47.268
그러면 어쨌든 마음의
떨림을 가라앉히고

00:08:47.368 --> 00:08:49.319
진정시키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

00:08:49.419 --> 00:08:52.749
문제를 풀 때 갑자기 멘탈이
살짝 어긋나는 때가 언제냐면

00:08:52.849 --> 00:08:55.698
옆에서 사그락 소리가 난다.

00:08:55.798 --> 00:08:56.935
무슨 이야기에요?

00:08:57.035 --> 00:08:58.873
옆에 있는 친구가 더
빨리 풀었기 때문에

00:08:58.973 --> 00:09:00.654
소리가 들리잖아, 사그락 사그락.

00:09:00.754 --> 00:09:05.038
특히 심장 약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

00:09:05.138 --> 00:09:08.444
내가 좀 늦다는 생각이 들면서
조바심이 나는 거예요.

00:09:08.544 --> 00:09:12.605
그러면서 자기 페이스대로 문제를 못
푸는 이런 일도 발생하는데

00:09:12.705 --> 00:09:14.599
저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,

00:09:14.699 --> 00:09:17.072
문법 되게 잘 푼 친구들,
공부 잘한 친구들에게는

00:09:17.172 --> 00:09:19.245
야, 처음부터 풀 필요 없어.

00:09:19.345 --> 00:09:22.537
1번부터 풀지 말고
10번부터, 11번부터 풀어.

00:09:22.637 --> 00:09:25.863

11~15번 다섯 문제, 문법
문제니까 그거 먼저 풀어.

00:09:25.963 --> 00:09:27.812

왜? 너 잘 알잖아.

00:09:27.912 --> 00:09:30.101

보기에 의존하지 않아도
잘 풀 수 있잖아.

00:09:30.201 --> 00:09:33.199

그러니까 너가 쓰는 거 되게
쉽게 쉽게 답이 나올 테니까

00:09:33.299 --> 00:09:35.890

쉽게 쉽게 답 쓰면서
내가 알고 있는 문제를

00:09:35.990 --> 00:09:37.674

처음에 맞고 시작하는 거니까

00:09:37.774 --> 00:09:40.270

기분 좋게 풀고
그다음에 1번을 봐.

00:09:40.370 --> 00:09:44.553

그러면 다른 친구들의 그 종이
넘기는 소리 신경쓸 필요 없잖아.

00:09:44.653 --> 00:09:46.539

너는 다른 템포로 가는 거니까.

00:09:46.639 --> 00:09:49.143

그런 식으로까지 이야기할 거예요.

00:09:49.243 --> 00:09:52.470

그런데 많은 학생들은 문법을
어떻게 먼저 풀어요?

00:09:52.570 --> 00:09:56.700

10번까지도 겨우 풀다가 11번부터
망하는데, 그러잖아요.

00:09:56.800 --> 00:10:00.292

그런데 잘 하는 친구들은 자신있게
11번부터 15번까지 딱 하고

00:10:00.392 --> 00:10:04.596

그다음에 앞에 오면
일거이득을 얻을 수 있는

00:10:04.696 --> 00:10:05.918

그런 상황이 만들어집니다.

00:10:06.018 --> 00:10:09.868

그래서 저는 문법을 정확하게 외워서
해결을 보자는 이야기고요.

00:10:09.968 --> 00:10:11.763

물론 외우기까지의 과정 속에서

00:10:11.863 --> 00:10:15.441

제가 쉽게 이해시켜주고
그다음에 설명을 해주겠죠.

00:10:15.541 --> 00:10:18.069

그게 잘 받아지면 외우는
작업도 편할 거예요.

00:10:18.169 --> 00:10:22.574

그다음, 사전 검색을
생활화하셔야 되는데.

00:10:22.674 --> 00:10:29.380

인터넷 강의를 들을 때 예를 들면
컴퓨터를 들을 때도 있을 것이고

00:10:29.480 --> 00:10:34.012

태플릿 PC, 핸드폰으로 들을
때도 있을 거라고 봐요.

00:10:34.112 --> 00:10:37.091

그런데 창을 하나
같이 띄워놓으세요.

00:10:37.191 --> 00:10:41.872

그리고 궁금할 때 항상
사전을 검색하는 거.

00:10:41.972 --> 00:10:49.977

네이버 사전 말고 국립국어원
표준국어대사전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.

00:10:59.281 --> 00:11:02.751

그래서 여기에서 어휘들을 검색하면서

00:11:02.851 --> 00:11:06.470

필요한 품사 정보라든지
아니면 활용 정보라든지

00:11:06.570 --> 00:11:08.224

이런 것들을 자꾸 보셔야 됩니다.

00:11:08.324 --> 00:11:10.767

그래서 사전 검색을
생활화하라는 이야기고요.

00:11:10.867 --> 00:11:12.401

불안한 거는 있어요.

00:11:12.501 --> 00:11:15.566

왜냐하면 사전을 검색하기
위해서 네이버 간 다음에

00:11:15.666 --> 00:11:19.051

그다음에 국립국어원
표준국어대사전을 치려고 하면

00:11:19.151 --> 00:11:22.923

그거를 치기 이전에 이미 밑에
있는 여러 가지 떠있는 거를 보고

00:11:23.023 --> 00:11:24.631

어머, 방탄소년단 하면서

00:11:24.731 --> 00:11:26.945

클릭하고 이런 일이 생길 것
같아서 걱정이 됩니다.

00:11:27.045 --> 00:11:29.229

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미리 하니까

00:11:29.329 --> 00:11:31.764

이거를 아예 창 하나를
만들어주라고요.

00:11:31.864 --> 00:11:35.630

즐거찾기를 미리 잡아주든지
아니면 미리 창을 띄워놓고

00:11:35.730 --> 00:11:38.138

그다음에 강의를 보려고
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해서

00:11:38.238 --> 00:11:40.332

선생님이 이야기하다가
이거 품사가 뭐잖아.

00:11:40.432 --> 00:11:43.471

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정말?
그런가보지.

00:11:43.571 --> 00:11:45.669

이렇게 넘어가지 말고
궁금하면 꼭 검색.

00:11:45.769 --> 00:11:50.113

이런 식으로 강의를 능동적으로
듣도록 하자고요.

00:11:50.213 --> 00:11:51.942

다음 마지막입니다.

00:11:52.042 --> 00:11:53.295

문제 풀이를 서두르지 마세요.

00:11:53.395 --> 00:11:54.779

여러분, 막 문제
풀고 싶어질 거야.

00:11:54.879 --> 00:11:57.519

어느 정도 내가 익혔으니까
문제를 풀고 싶어.

00:11:57.619 --> 00:11:59.280

괜찮아, 좀 참도록 합시다.

00:11:59.380 --> 00:12:02.413

문제요? 하나도 안 어려워.

00:12:02.513 --> 00:12:04.257

모르니까 어려운 거예요, 문법은.

00:12:04.357 --> 00:12:06.692

그런데 문법 지식이
들어온 상태에서는

00:12:06.792 --> 00:12:09.142

문제가 그냥 계속 틀릴
수가 없는 거예요.

00:12:09.242 --> 00:12:10.559

딱 답이 나오는 거예요.

00:12:10.659 --> 00:12:14.462

문학 같은 경우나 비문학은 애인가,
이렇게 생각하면 애인가?

00:12:14.562 --> 00:12:16.903

이런 식으로 고민을 해야
되는 문제가 맞지만

00:12:17.003 --> 00:12:20.252

문법 같은 경우에는 애인가,
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애인가?

00:12:20.352 --> 00:12:21.294

이런 거는 없어요.

00:12:21.394 --> 00:12:22.286

그냥 답이 나오는 거예요.

00:12:22.386 --> 00:12:25.652

애지, 애지 딱 답이 나오기 때문에

00:12:25.752 --> 00:12:27.361

지식을 익히는 게 우선입니다.

00:12:27.461 --> 00:12:29.391

자꾸 문제를 통해서 적응을 할래.

00:12:29.491 --> 00:12:30.674

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.

00:12:30.774 --> 00:12:35.137

확실하게 개념 다 잡고 그다음에
문제를 풀면 다 맞는 거야.

00:12:35.237 --> 00:12:38.098

그러고 나서 이러한 문법
지식이 쌓이게 되면

00:12:38.198 --> 00:12:41.312

여러분이 이것을 한동안
씩 놔버리면 안 돼요.

00:12:41.412 --> 00:12:45.396

처음에 한 번에 쭉 20강을
들어서 강의를 들었다.

00:12:45.496 --> 00:12:47.659

내 거를 만들었다 하면 까먹기 전에

00:12:47.759 --> 00:12:50.270

한 달 있다가 한 번 정도
다시 한 번 살펴보고 해서

00:12:50.370 --> 00:12:53.764

몇 번만, 3~4번 정도만
주기성을 갖고 복습을,

00:12:53.864 --> 00:12:56.139

그때는 꼭 강의를 들으라는
이야기는 아니에요.

00:12:56.239 --> 00:12:58.931

교안을 보면서 쪽 넘기면서
여러분 거로 만들면

00:12:59.031 --> 00:13:02.109

그게 끝까지 가는 겁니다,
수능 때까지 쪽 가는 거예요.

00:13:02.209 --> 00:13:06.064

매번마다 문법 안 되니까
다시 해볼까 찝끔 듣고

00:13:06.164 --> 00:13:09.111

그다음에 몇 강 안 되는
강의로 끝을 내보고 싶어.

00:13:09.211 --> 00:13:13.484

그런 마음이 들려고 하다가
이거는 별거 없네?

00:13:13.584 --> 00:13:15.081

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만 두고.

00:13:15.181 --> 00:13:16.153

이렇게 하지 마세요.

00:13:16.253 --> 00:13:20.572

정말 이번에 철저하게 준비해서
강의를 진행하는 거니까

00:13:20.672 --> 00:13:23.120

여러분이 잘 따라와줬으면 합니다.

00:13:23.220 --> 00:13:24.787

OT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.

00:13:24.887 --> 00:13:26.039

2강에서 만나겠습니다.